

삼성Total, 변화 통해 재도약 다짐

새로운 CI와 중장기 비전 선포 ... 대산단지 석유화학합작 성공모델 구현

삼성과 세계 4위의 에너지 석유화학 그룹인 프랑스 Total그룹이 2003년 동등지분으로 출자한 삼성Atofina가 회사명을 삼성Total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재도약을 추진기로 했다.

삼성Total(대표 고홍식)은 비전선포식에 앞서 10월4일 비전 설명회를 갖고 기업의 발전방향 제시와 함께 제2의 탄생을 발표했다.

고홍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8년 회사 창립 이래 16년간 한결같이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도전과 개혁의 역사를 창조한 선배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새롭게 출발한 삼성Total은 오늘을 진정한 변화와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홍식 대표이사

또 “향후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적극적인 합리화 투자를 통해 합성수지, 화학섬유원료, 기초유분 등 기존사업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삼성과 Total의 강점을 융합한 신기업문화 구축으로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World Most Competitive Chemical Company>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석유화학 산업의 허브로서 대산단지와 평택항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세계의 화학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중동의 원가 경쟁력, 중국의 거대 시장과 같은 발전기초가 없는 한국 상황에서 <Standard Alone>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해 글로벌화를 위한 Total과의 합작을 높이 평가했다.

삼성Total은 회사명 변경에 대해 “프랑스 Total그룹이 정유, 석유화학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정밀화학 등 일부 화학사업은 분리 매각한다는 사업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Total은 10월5일 전직 사장단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해외 주요 거래선 등 총 1200여명을 초청해 서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새로운 CI 발표와 함께 창립기념행사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10/05>